

응우옌 왕조(1802-1945) 건설 기 짜빈 크메르 병사들의 활용: 내전의 선봉, 외정의 전위*

최 병 욱**

I. 머리말

1801년, 30년에 가까운 내전이 끝나갈 무렵, 사이공에서 출발하여 북쪽으로 진군을 시작한 응우옌푹아인(Nguyễn Phúc Ánh, 1762-1820)의 군대에는 유럽인, 중국인, 참인, 캄보디아인, 타이인, 라오인 등등 다양한 민족적(ethnic) 배경을 갖는 군인들이 뒤섞여 있었다.¹⁾ 이들의 존재는 『대남식록정편(大南寔錄正編)』 곳곳에 등장하는데 19세기 초반 베트남 사서의 내용을 다양한 민족군의 집합으로 색칠하고 있다. 다민족이 공존하는 국가에서 일어난 전쟁이 단일 민족 사이에서만 수행되는 경우는 없다. 또 주변 국가의 개입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 외국인이 베트남 사서에 등장하는 경우가 독특하다 싶을 정도로 많다. 그 이유는 이 내전이 국내 종족 분쟁과 국제전의 성격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이다.

응우옌푹아인 측에서 활약하던 이민족 군인 중에서 ‘실록’에 가장

* 이 연구는 2011년도 한-아세안 학술교류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인하대 사학과

1) 응우옌푹아인 군대의 다민족성에 대한 개괄은 Wilcox(2006) 참조.

많이 등장하면서 독자에게 혼란스러움을 안겨주는 데 일조하는 집단은 ‘진랍병(眞臘兵)’ ‘랍병(臘兵)’ ‘섬라병(暹羅兵)’ ‘섬병(暹兵)’ 등이다. ‘진랍’은 오랜 세월 동안 한자 문화권에서 캄보디아를 지칭하는 말이었으니 ‘진랍병’은 캄보디아에서 파견한 군대라고 보면 된다. ‘섬라’ 역시 ‘진랍’ 만큼이나 오래도록 태국을 가리키는 단어였다. ‘섬라병’은 태국에서 온 지원군이였다. 그렇다면 ‘랍병’과 ‘섬병’은 각각 캄보디아 병사와 타이 병사를 이뤘을까? ‘랍병’은 ‘캄보디아 병사’ 즉 ‘진랍병’의 줄임말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섬병’은 ‘섬라병’의 줄임말이 아니었다(1810년대 이전까지는). 이들은 메콩 델타 크메르 병사들로서 ‘섬병둔(暹兵屯)의 병사들’이란 것이 자세한 사료 읽기와 맥락 이해를 통해서야 겨우 파악된다.

섬병둔에 대한 ‘실록’의 기록은 1787년 음력 9월에 나타난다. “[응우옌푹아인이] 완문존(阮文存)에 명해 차영(茶榮)과 빈절(斌沓) 두 곳의 번민(番民) 수천 명을 묶어 병사로 만들어 섬병둔(暹兵屯)이라고 존(存)을 속내해대(屬內該隊)로 삼아 관할하게 했다.”²⁾ 여기서 차영과 빈절은 대략 현 짜빈(Trà Vinh) 성에 해당한다.³⁾ 일찍이 섬병

2) 『大南寔錄正編第一紀』(1848.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1968)(이하 『寔錄』1), 3:6.

3) 빈절은 발음이 번티엣(Bản Thiét)인데 현재 이런 발음을 갖는 지명은 메콩 델타에 존재하지 않는다. 베트남 공화국(Republic of Vietnam) 시대에 번역된 『대남일통지(大南一統志) - 남월6성(南越六省)』(Đại Nam Nhất Thống Chí, Lục Tỉnh Nam Việt)에서는 번티엣을 먼티(Mân Thít)으로 비정하고 있다(p. 6). 그런데 남부인은 먼티를 망티(Mang Thít 또는 Mãng Thít)으로도 발음한다. 현재 지도상에는 빈롱 성 남부에 망티이라는 이름을 가진 강이 하나 있다. 이 강은 전강 쪽으로 흐르는데, 강 하류에 망티 현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18세기의 망티 또는 먼티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위치는 앞서 소개한 『대남일통지』의 기사와 맞지 않는다. 『대남일통지』에서는 1825년 행정 개편으로 짜빈이 차영현(茶榮縣), 먼티이 준의현(遵義縣)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준의현은 차영현 남쪽에 있다고 한다. 이 준의현의 중심지는 현 끼응양(Cầu Ngang) 현이다. 그런데 정회덕(鄭懷德 Trịnh Hoài Đức)은 『가정성통지(嘉定城通志)』에서 번티엣(현대어 번역본에는 먼티)이 빈롱 성 서남부에 있는 짜온(Trà Ôn) 근처에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먼티는 후강(Lower Mekong)에 접한 끼우게(Cầu Kè), 짜꾸(Trà Cú)를 포괄하는 지역일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어디가 번티엣이었는지를 자신있게 비정하기 어렵다. 단지 이 가능한 세 지역이 모두 현 짜빈 성에

둔 조직에 관한 기사는 응우옌푹아인(이하 아인)의 자던 군이 타이 군의 지원 또는 합류를 가장하기 위해 크메르인 부대를 타이 부대로 불렀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Choi 2004: 34). 완문존(Nguyễn Văn Tôn, ?-1820)은 크메르인으로서⁴⁾ 일찍이 아인이 2차로 방콕에 망명했을 때(1785) 그를 수행했던 30여인 중의 하나였다(『寔錄』1, 3:10b). 방콕에서의 경험이 완문존으로 하여금 적당하게 크메르인을 타이 병사로 가장시키는 일이 가능했겠다. 그러나 이름만 빼고는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사쿠라이는 혹 이들이 1785년 라익검에서 패배 후 베트남에 남은 타이 병사이거나, 이 타이 병사들이 섞인 크메르인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해 보지만(Sakurai 2004: 47) 더 이상의 논의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짜빈 성 내부 자료로 간행된 1995년판 『짜빈성의 역사(Lịch Sử Tỉnh Trà Vinh)』(Tỉnh Ủy Trà Vinh)는 짜빈의 과거를 다룬 유일한 역사서이지만 섬병들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단지 이 책에서는 완문존의 활동만을 몇 줄로 언급할 뿐이다(57-58).

나는 섬병들이 1808년에 ‘위원둔(威遠屯)’으로 바뀐 데에도 주목한다. ‘타이 병사로 이루어진 둔전병 집단’이라는 뜻에서 ‘먼 지역(민)에 위세(또는 위신)을 보이는 군사 집단’이 되었다. 여기서 ‘먼 곳’이란 크메르인이 살고 있던 메콩 델타 지역이기도 했고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대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그 너머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혹은 그보다 더 먼 곳일 수도 있다.

포함되거나 인접한 곳이니, 본고에서는 짜빈과 먼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짜빈으로 통칭하도록 하겠다.

- 4) 필자가 방문한(2014년 2월 22일) 짜온 소재 완문존 부부의 묘소에는 그의 출생 연대가 1763년, 출생지는 짜빈 성 깡롱(Càng Long)의 응우옌랑(Nguyệt Lăng) 마을이라 되어 있다. 병사 초모 기록도 있는데, 연대는 1789년이며 그 대상지는 짜온과 끼우끼엌이라고 한다. 시간과 공간이 모두 ‘실록’과 어긋난다. 이는 지방 소재 유적지에서 종종 보이는 현상이다. 병사 초모 대상지로 언급되는 짜온과 끼우끼엌은 먼땃의 소재 가능한 세 지역 중 정회덕이 말한 곳에 해당한다. 완문존의 고향이라는 깡롱은 현 망땃현과 인접한 곳이다.

섬병둔, 또는 위원둔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어떤 배경에서 그들은 차딘 군대의 주력군에 합류했던가? 그들의 활동 지역은 어디였던가? 그들의 군사적 능력은 어느 정도였던가? 그들의 활동상은 섬병둔병으로서와 위원둔병으로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짜빈은 영토를 상, 중, 하로 나누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하부(Lower Cambodia, Kampuchea Krom)에 속한다. 20세기 캄보디아 민족주의 지도자 쏬응옥타인(Son Ngoc Thanh), 크메르루주 지도자 중 이양세리(Iang Seri)와 손센(Son Sen)이 짜빈 출신이다. 그리고 반공 지도자로 유명한 손산(Son Sann)의 경우, 본인은 프놈펜 출신이지만 부모는 짜빈 사람이다.⁵⁾ 이런 사실은 짜빈의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캄보디아 중심부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왜 프놈펜 같은 캄보디아 중심지로부터 보자면 남쪽 끝 변방인데다가 베트남 땅이 된 지 이백 년이 넘어가는(베트남 입장에서) 짜빈에서 나왔는가? 어떤 힘이 이 지역 출신 인사들로 하여금 캄보디아 중앙을 움직이게 했는가? 더군다나 이곳 사람들은 최근 남부베트남의 중심부인 사이공 및 그 주변으로까지 진출하고 있음이 포착되고 있다. 사이공에는 이들이 중심이 되는 소승불교 사원까지 들어서고 있으며 이런 절에 다니는 베트남인 신도도 늘고 있다(Taylor 2014: 219-251; 최병욱 2015: 280-281). 크메르인이 베트남인에 동화되기는커녕 반대로 베트남인을 크메르화 하는 역량도 궁금하다.

본문은 세 개의 이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캄보디아 땅이었던 짜빈 지역이 어떤 경과를 거쳐서 베트남 땅으로 흡수되었는가를 살필 것이다. 그 다음 장에서는 짜빈의 남성들이 아인의 승리와 19세기 통일 베트남 성립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이 주로 군사 방면에서 논의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 베트남이 캄보디아에의 영향력을 확

5) 이들 이름에 나오는 ‘손(Son)’은 19세기 전반기에 동화 정책의 일환으로 베트남 조정이 소수민족에게 강여(強與)한 한자 성 중 하나인 썸(Son 山)이 틀립었다.

대해 가는 과정에서 짜빈 크메르인이 하고 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제3장에서 살피도록 하겠다.

II. 뿌라 뜨라뻥에서 짜빈으로

짜빈을 표기하는 한자어 ‘茶榮’은 캄보디아어 발음을 옮기기 위한 베트남식 한자 음차일 것이다. ‘Trà Vinh’을 우선 베트남 남부 발음을 통해 궁구해 보기로 하자. 남부인은 Trà를 ‘뜨라’에 가깝게 발음하고 Vinh은 ‘빈’에 가깝다. 그러나 프놈펜을 지칭하는 ‘南榮’을 ‘남방(Nam Vang)’으로 읽듯 ‘榮’은 ‘방’을 표기하는 글자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茶榮’은 ‘뜨라방’ 정도의 발음을 표기하는 한자였다고 볼 수 있다. 60-70년대 남부의 베트남 공화국 시대에 나온 글이나 지도를 보면 ‘Trà Vinh’이 아니라 ‘Trà Vang’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⁶⁾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짜빈의 기원을 크메르어 ‘쁘레아 뜨라뻥’에서 찾는다. 이런 견해는 이미 베트남 공화국 시기부터 레호영(Lê Huong) 같은 남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으며 캄보디아 학자 킨속도 짜빈을 ‘Preah Trapheang’이라고 표기해 놓고 있다 (Lê Huong 1970: 50, 70; Khin Sok 1991). ‘쁘레아’는 비교적 널리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가 ‘preah’로 일정하다. 단, 이 발음이 짜빈에서는 ‘뿌라’에 가깝다. 네이버 캄보디아어 사전을 검색해 보면 ‘연못’에 해당하는 크메르어의 한글 표기는 ‘뜨로뻐앙’이다. 이 명칭의 로마자 표기는 학자마다 달라서, Trepeang, Trapeang, Trapheang, Trapang 등 다양한데, 이 글에서는 가장 단순

6) 응우옌반허우의 지도에는 짜빈이 Trà Vang으로 표기되었고, 남방은 오히려 남빈(Nam Vinh)으로 되어 있다. Nguyễn Văn Hâu(1970), p. 4. 이렇듯 ‘빈(Vinh)’과 ‘방(Vang)’은 서로 통한다.

화된 발음과 표기인 ‘뜨라뺑’을 채택하였다. 이것이 현 짜빈 발음이기도 하다. 빠라는 ‘신’ 또는 ‘부처’ 같은 명사가 되기도 하고 ‘신성한’이란 형용사로 쓰이기도 한다. 뜨라뺑은 연못이란 뜻을 갖는다. 그렇다면 ‘빠라 뜨라뺑’은 ‘연못의 부처’ 혹은 ‘신성한 연못’이다. ‘뜨라뺑’이 ‘뜨라방(Trabang)’이 되고 이것이 ‘짜방(뜨라방, Travang)’이거나 ‘짜빈(뜨라빈, Travinh)’이 되는 게 논리적이어 보인다.

그러나 베트남 사람이 캄보디아 말을 이렇게 거의 정확하게 발음하고 그 전이가 똑 떨어지게 합리적인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 발음 습관이나 언어 구조의 차이로 인해 캄보디아 원어와 베트남어 발음 사이에는 굴절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미토(My Tho 美湫)의 기원이 캄보디아어 메서오(Me So)인 것과 같다. 내가 보기엔, ‘빠라 뜨라뺑’ 중 뜨라뺑의 ‘뜨’ 발음이 묵음되고 ‘라방’이란 발음이 ‘자방’에 가까이 가다가 ‘짜방’ 또는 ‘짜빈’이 되었다는 게 훨씬 베트남인의 발음 현실을 반영하는 해석이다. 이는 20세기 초 프랑스 식민 정부의 견해에 기초한다. 그들은 짜빈의 기원이 ‘빠라스 빠라방(Prac Prabang)’이며 그 뜻은 ‘부처의 연못’으로 이해한 바 있는데⁷⁾ 여기서 ‘prac’는 ‘빠라’를 표기한 것이다. ‘preah’ 중 ‘h’는 ‘s’에 가까운 음가 표기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s’ 발음이 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런데 ‘prabang’은 정체가 모호하다. 아마도 ‘뜨라방’의 첫머리 ‘t’가 ‘p’로 잘못 쓰인 것이 아닌가 싶다. 식민지 관리들은 ‘빠라방’이 ‘라방’이 되고 ‘라방’이 ‘짜방’이 되었다가 다시 ‘짜빈’으로 정착되었다고 주장했다(ibid.). 프놈펜의 ‘프’가 묵음된 후 ‘놈펜’만을 갖고서 ‘남방’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⁸⁾ 맨 앞의 자음이 묵음되는 현상은 메콩 델타의 사텍(Sa Déc)이

7) *Monographie de la Province de Trà-Vinh* (Saigon: Imprimerie L. Ménard 1903), p. 5.

8) ‘프놈펜’도 정확한 발음은 ‘쁘놈뺑’이다. 이 경우 ‘쁘’가 묵음되고 ‘놈뺑’이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친 끝에 ‘남방’이 된 것이다.

라는 지명에서도 발견된다. 원래 캄보디아 지명은 **쁘사텍**(Psar Dek, **쁘**는 시장, **텍**은 철)이었지만 ‘**쁘**’가 묵음되면서 사텍만 남은 것이다. **찌우독**(Châu Đốc)의 근원은 캄보디아어 **메앗찌로옥**(Meat Chrouk, **찌**로옥은 돼지)이다. **찌로옥**이 **찌우독**으로 바뀌었는데 모음과 함께 자음 음가 ‘**ㄹ**’이 ‘**ㄷ**’이 되었다. 이렇듯 캄보디아어 지명은 베트남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베트남인의 입 구조에 맞게 왜곡 내지는 변형된다.⁹⁾

짜빈은 ‘연못의 부처’ 또는 ‘신성한 연못’이라는 원래 이름이 암시하듯 불교 전통이 강한 곳이다. 그래서 절이 많다. 현재 인구 약 30만 명의 짜빈 성에 140개 이상의 절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¹⁰⁾ 가히 이곳은 “사원의 군도(monastic archipelago)”(Taylor 2014: 54)라고 할 만하다.

짜빈이 베트남 땅이 된 시기는 불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1750년대에 메콩 주변의 **미토**(1754), **고꽁**(Gò Công, 1755), **짜빈**(1757),¹¹⁾ **속짱**(1758), **찌우독**(1759)이 차례로 베트남에 할양되었다고 한다(Huỳnh Minh 1967: 19-21; Nguyễn Văn Hào 1970: 4, 9). 그러나 이 편입 과정은 20세기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9) 중부 팡남과 팡아이 등 참파가 있던 지역에 유독 ‘**Trà**’를 포함하는 지명이 많은 것도 베트남인의 발음 습관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현 팡남 성의 **짜끼에우**(Trà Kiêu)는 원래 참파 아마라바티 왕국의 수도로서 원래 **심하뿌라**(Simhapura)였다. 이 중 도시 또는 국가를 뜻하는 ‘**뿌라**’에서 ‘**뿌**’가 묵음 또는 약음되어 ‘**Trà**’로 화했음 가능성이 높다고 나는 생각한다. 비자야를 가리키는 베트남 말이 ‘**짜반**(Chà Bàn 闍般)’이라면 여기서의 ‘**짜**’ 또한 ‘**Vijaya**’에서 앞의 자음이 묵음되면서 나타난 발음일 것이다. 참파의 전통을 고려해서 짜끼에우의 ‘**짜**’와 짜반의 ‘**짜**’가 ‘**짬**(Cham)’에서 기원한다는 주장도 있지만(Wheeler 2006: 184) 이는 너무나 단순한 유추인 것 같다.

10) Phạm Thị Thường Hạnh et al.(2012), p. 67. 인구 대비 불교 사원의 비율이 베트남에서 가장 높다.

11) 미토와 짜빈 사이에 있는 **벤째**(Bến Tre)의 베트남 귀속 시기는 여간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미토가 베트남으로의 귀속된 시기도 1754년이라기 보다는 1772년이라고 보아야 된다. 이 해에 비로소 베트남의 행정 기구인 **장둔도**(長屯道)가 설치되었다. 그 중심지는 현 미토로부터 약 12킬로미터 북쪽에 있는 **떤히엵**(Tân Hiệp)이었다. ‘**도**’는 이민족이 살고 있던 땅에 베트남인이 들어가 선주민과 혼재하고 있는 **신지**(新地)에 두어지는 잠정적 행정 단위였다.

믿는다는 것이지 캄보디아도 동의하는 역사는 아니다. 심지어 베트남의 19세기 기록에도 이 시기의 내지화 과정은 불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다. 특히 짜빈의 사례가 그러하다. 예를 들어 보겠다. 『大南寔錄』에는 1757년 베트남의 무왕(武王, 1738-1765)이 짜빈(茶榮)과 파득(巴忒, 속짱을 가리키나 박리에우를 포함하기도 함. 이하 편의상 속짱으로 부름) 2부(府)¹²⁾의 현지를 캄보디아에 요구하고 있다. 이 해에 캄보디아 왕 원(原, Ang Nguyễn, 1747-1749; 1755-1758)이 사망하자 그의 숙부뻘인 윤(潤)이 왕이 되었는데 책봉의 대가로 이 두 지역을 윤에게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곧 정변이 일어나고 윤의 아들인¹³⁾ 존(尊, Prah Qutey, 1758-1775)¹⁴⁾을 하띠엔의 막천사(鄭天賜 Mạc Thiên Tứ)가 도와서 캄보디아 왕으로 앉힌바 있다. 그 보답으로 새 왕 존이 땀풍롱(Tầm Phong Long 尋楓龍) 지역을¹⁵⁾ 베트남 왕에게 헌지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곧 이어 다시 향오(香澳 Hương Úc), 근발(芹渤 Càn Bột), 진삼(眞森 Chân Sâm), 시말(柴末 Sài Mạt), 령경(靈瓊 Linh Quỳnh) 등 5개 부(府)¹⁶⁾를 막천사에게 기증하니 다시 막천사는 이를 베트남 조정에 헌납했다고 한다.¹⁷⁾ 이 언저리의 ‘실록’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캄보디아 왕이 내주었다 한 땅은 땀풍롱과 5개 부(스

12) 이는 캄보디아의 지방 단위인 ‘스록’을 베트남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13) 윤의 아들이 아니라 원의 아들이라는 주장도 있음. Nguyễn Văn Hầu(1970), p. 9. 캄보디아 왕계와 재위 기간은 많은 경우 정확한 비정이 불가능하다. 정확한 결론을 내기 무망한 가운데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데 빠지지 않고, 각기 다른 주장들을 소개하기 위해 글의 내용이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자는 베트남과 관련된 인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베트남의 사료를 기준으로 삼을 것임을 밝혀둔다.

14) 이하 캄보디아 왕의 이름, 재위 기간은 Hall(1958), p. 740의 캄보디아 왕위 계승 연표를 바탕으로 하고 필요시 다른 문헌을 참고하여 내용을 가감할 것임.

15) 땀풍롱의 범위가 어딘가를 놓고 의견이 구구하다. 안장이라는 설, 빈롱이라는 설이 대표적이고, 사꾸라이는 심지어 땀풍롱이 사이공에 가까운 롱안 지역이 아닐까도 추정하고 있다. Sakurai(2004), p. 41.

16) 이 중 근발은 캄뻏, 시말은 사이맛이 확실하다. 나머지는 어느 곳인지 분명치 않다. 캄뻏과 사이맛은 19세기 중반 캄보디아에 반환되었다.

17) 『大南寔錄前編』(1844. 慶應義塾大學語學研究所, 1961)(이하 『前編』), 10:29.

록)이지 메콩 하류에 위치하는 짜빈과 속짱을 자발적으로 넘겼다는 기사는 없다. 단지 베트남 왕이 이 두 곳을 차지하기 원했다는 얘기 뿐이다. 이후 어떻게 짜빈과 속짱을 관리하게 되었는지도 ‘실록’에는 1780년대까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베트남 왕이 관심을 갖게 된 곳이니만큼 이 지역을 할양하라는 베트남 측의 요구는 계속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런데 캄보디아로서는 베트남의 뜻을 받아들일 입장이 아니었다. 속짱은 메콩을 따라 바다로 나아가는 요로 상에 위치하며 프놈펜을 비롯해 내륙에 소금을 공급하는 생산지로서 캄보디아 왕에게는 중요한 곳이었다.¹⁸⁾ 속짱이 메콩 후강을 통해 바다로 나가는 길목이라면 짜빈은 메콩 전강이 바다로 통하는 데 위치했다. 캄보디아 왕이 전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트남이 두 스톱을 자기 소유라 여기던 게 18세기 말의 형편이었던 것 같다.

1792년 3월 태국 왕이 속짱을 캄보디아에 돌려주라고 아인에게 요구했다(『寔錄』1, 6:2b). 이는 베트남의 속짱 지배가 이웃 국가에게 조차 억지스러운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정황을 반영한다. 캄보디아는 태국에 호소하여 반환을 압박했던 것이다. 당시 태국에 신세를 지고 있던 응우옌푹아인으로서는 이 문제로 인해 태국과의 관계가 결끄러워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 해 6월 아인은 “파특부(巴忒府)를 진랍(眞臘)에게 사(賜)했다”(『寔錄』1, 6:9a)고 한다. 이곳에는 응우옌 왕조가 건국된 이후에도 한동안 옥야¹⁹⁾라는 직책을 가진 인물들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초반까지 속짱과 캄보디아 조정 사이의 지방과 중앙의 관계는 줄곧 유지되고 있었던 것 같다.²⁰⁾ 심지어

18) 속짱의 소금, 쌀, 그리고 18세기 교역항으로서의 중요성은 Li Tana(2006), pp. 148-152 참조.

19) 이 호칭과 발음에 대해서는 최병욱(2014), p. 73 참고.

20) 이런 형편은 하띠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막구가 베트남으로 귀부하자(1708) 베트남 조정은 그에게 통병(統兵)이라는 직책을 주었다. 하지만 막구는 동시에 캄보디아

어 위의 기사를 근거로 속짱 지배권이 응우옌푹아인, 크메르 지도자, 캄보디아 왕, 태국 왕 등 네 개의 세력 집단에 의해 공유되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이다(Li 2006: 151). 태국 왕의 지배권까지 인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지만 타나가 지적한대로 “정치적 정체성의 모호함(ambiguity of political identity)”(Li 2006: 151)이 존재한(18세기말까지) 속짱의 형편은 짜빈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짜빈과 속짱의 현지를 요구했다’는 1757년의 기사 이후 짜빈 관련 기사는 23년이 지난 뒤인 1780년에야 비로소 나온다. 이때 아인은 두청인(杜淸仁 Đỗ Thanh Nhân)으로 하여금 ‘차영부(茶榮府)’를 정벌하게 했다.

차영의 진랍인이 내속한 지 오래되어(久爲內屬) 매년 공부(貢賦)를 바쳐 왔는데 전쟁으로 일이 많아지게 됨에 이르자(及兵革多事) 추장 옥야 솔(率)이 마침내 반란을 도모했다. 황제가 병사를 보내 그들을 공격했으나 적은 보루를 견고히 하고 지켰다. 그 땅은 깊은 숲과 넓은 소택으로 인해 거친 풀이 울창하니 솔은 힘준한 곳에 의지하여 저항하고 강한 쇠뇌(勁弩)를 장기로 삼아 관군이 이겨낼 수 없었기에 황제는 [杜]청인에게 명하여 가서 싸움을 독려하게 하니 [...] 솔은 쫓기다가 관병에 사로잡혔고 청인은 남은 무리를 초무하여 본업에 종사하게 했다. 차영은 마침내 평정되었다.(『寔錄』1, 1:10)

이 기사는 짧은 내용 안에 많은 사실을 담고 있다. 우선 ‘진랍인’이라는 표현이 주목된다. 당시 진랍은 캄보디아를 지칭하는 공식 용어였던 만큼 ‘차영의 진랍인’이란 곧 ‘짜빈의 캄보디아인’이라는 말이다. 이 지역민을 베트남 조정에서조차도 캄보디아의 일부로 인식하

아의 옥야였다. 아울러 그는 캄보디아 조정의 눈에 중국인 공동체 지도자였을 뿐이다. 1771년까지도 이곳의 크메르인은 캄보디아 옥야 레아췌아 세띠(Reachea Setti)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고 한다. Sakurai(2004), p. 43.

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짜빈 크메르인이 ‘내속한 지 오래 되었다’는 것은 이 지역민이 베트남에 귀부해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곳이 베트남에 헌납된 바가 없었다. 설사 강제로 내속되었다 해도 그것이 오래되지도 않았다. 베트남의 현지 요구가 있었다는 1757년을 ‘내속’ 시점으로 잡는다고 해도 베트남에게 ‘오래’란 1780년을 기준으로 23년의 시간이었다.

그 다음은 ‘내속’과 관련해 ‘매년 공부를 바쳤다’는 기사이다. ‘공’이란 이 지역에서 할당된 생산물 중 조정에 납부하는 공세를 말한다. 매년 공부를 바쳤다는 것은 이 지역이 조정의 판도 안으로 들어와 내지화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지배자끼리의 상호 우열 관계 속에서 짜빈의 지배자가 조공의 형태로 베트남 왕에게 일정한 선물을 바쳤다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 조공이나 공부를 바치는 경우 공히 해당 지배자의 자율적 지배는 인정되지만 필요시 베트남 조정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있었다. 그리고 짜빈의 지배자는 동시에 캄보디아 왕에게도 공부를 바쳤음이 틀림없다. 그가 ‘옥야’라 불리는 게 그 증거이다.

이런 관계로 인해 ‘전쟁으로 일이 많아지게’ 되자 문제가 생겼다. 여기서 전쟁이란 띠이썬과 아인 간의 내전을 말함이기도 하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그 내전의 와중에서 벌어지던 베트남-캄보디아 간 충돌도 포함되었다. 짜빈 반란을 진압하기 10개월 전인 1779년 음력 6월에 두청인이 호문린(胡文麟 Hồ Văn Lân), 양공징(楊公澄 Dương Công Trùng)과 더불어 캄보디아를 정벌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그 이유는 캄보디아 내부의 갈등이었다. 영(榮)이란 자가 캄보디아 왕이었는데, 그가 베트남에 고분고분하지 않자 응우옌푹아인의 명령으로 두청인이 군대를 이끌고 가 왕을 죽이고 인(印)을²¹⁾ 세웠다. 이때

21) 영은 앙논(Ang Non, 1775-1779)이다. 그는 1758년 하띠옌의 막천사가 지원해서

호문린이 캄보디아에 남아 왕을 보호했다(『寔錄』1, 1:7b).²²⁾ 캄보디아 원정길에 짜빈 같은 메콩 델타 지역의 크메르인들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가정성통지』의 기사를 참고할 만하다. 여기에도 짜빈의 반란 기사가 나오는데 ‘경오(庚子) 3년 일이 있어서 [인력을] 징발하려니 ‘차영부’ 추장 옥야 쭈웃브엉(Suốt Bưóng)²³⁾이 명을 받들지 않아 조정이 관군을 보내 정벌했다고 했다.²⁴⁾

무엇보다도 ‘추장 옥야 쭈웃이 마침내 반란을 도모했다’라는 대목에서 우리는 이 시기까지 짜빈은 옥야의 지배 아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옥야는 캄보디아 조정으로부터 임명된 인물이지만 베트남의 짜빈 지배에서 대리자 역할도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베트남이 주장하는 ‘내속’은 옥야가 베트남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이 반란을 진압하면서 짜빈에서 옥야 쭈웃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인의 지배권이 확고해질 겨를도 없었다. 1784년 아인은 띠이썬에 밀려 방콕으로 망명하니 짜빈은 크메르인의 자치로 다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아인이 짜빈 지배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은 1787년 방콕으로부터 영구히 돌아오면서부터였다. 이때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짜빈 출신 크메르 장군 완문존이다.

‘완문존 열전’에 의하면 그는 “진랍(眞臘) 차영인(茶榮人)으로서 원래 궁중의 액정노(掖庭奴)였다”고 한다. 우드사이드는 아인 집단 내 외국인을 소개하면서 완문존을 언급한 바 있는데 ‘열전’에서의 기록에 기초하여 그를 ‘전 캄보디아 궁정 노예(former Cambodian

왕위에 앉힌 존(프라꾸페이)의 동생이며, 인은 존의 아들이다. 『前編』, 12:13.

22) 새로 왕이 되었다는 인은 훗날 태국으로 끌려가는 앙앵(Ang Eng, 1779-1796)이다.

23) 쭈웃브엉을 표기하기 위해 쓴 단어는 쯤놈으로서 ‘申+率’과 ‘禾+更’이다. 정회덕은 짜빈의 茶榮 중 茶는 ‘木+茶’ 榮은 ‘木+榮’으로 표기하고 있다.

24) Trịnh Hoài Đức(1998), pp. 132(원문); 55(번역).

palace slave)’라고 이해한 바 있다(Woodside 1971: 17).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액정(掖庭)’이란 ‘후궁(後宮)’을 의미하는데, ‘액정노’라면 후궁에서 일하던 노비를 뜻한다. ‘열전’에 의하면 훗날 민망 황제(1820-1841)가 완문존을 평한 대목에서 “존은 비록 노로(奴虜) 출신이지만 충용(忠勇)했다”는 말이 나온다. 여기서 ‘노로’란 역시 종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가 노비로 일했다는 후궁이 어디의 후궁인지는 알 수가 없다. 후에에 있던 왕궁이었는지, 왕실이 사이공에서 일단 정비된 후(1780년 아인이 사이공에서 왕위에 오름)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가운데 남부 어디에선가 왕실 일행에 합류해 심부름꾼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아인 일행이 방콕에 망명해 있었을 때 그곳에서 종복으로 일했을 가능성도 있다. ‘열전’에는 그가 ‘갑신(甲申, 1784) 봄에 망각(望閣 방콕)으로 왕의 행차를 따라가 해대(該隊) 관직을 지냈다’고 한다.

방콕에서의 두 번째²⁵⁾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남부 베트남으로 돌아온(1787) 아인은 크메르인을 정규군으로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이를 위해서 짜빈과 번티엣의 크메르인이 선택되었다.

그렇다면 왜 특히 이 두 지역이었을까? 당시 크메르인은 남부 도처에 살고 있었는데 말이다. 당시에 속짱에도 크메르인 공동체가 컸고, 하띠엔으로부터 까마우까지도 크메르인이 거주했다. 떠이닌(Tây Ninh) 역시 크메르인 밀집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두 지역이 아인에게 매력적이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완문존의 출생지가 짜빈이라고 알려졌으니 그의 연고망(緣故網)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둘째는 지리적 이유이다. 1787년에 삼 만을 건너 베트남에 상륙한 아인은 호주(虎洲)에 근거지를 건설하면서

25) 1784년 방콕으로 갔던 응우옌푹아인은 이듬해 라마 1세의 지원으로 태국군을 이끌고 베트남으로 돌아왔다가 떠이썬에 패하고 다시 방콕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1785년의 두 번째 망명이다.

300명의 병사와 20척의 전선을 동원했다고 하는데(『寔錄』1, 3:6a), 이곳은 현 롱쑤옌(Long Xuyên)으로서 메콩(후강)을 따라 짜빈에 연결된다. 셋째, 이곳 크메르인의 군사적 명성 또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1780년 짜빈 크메르인의 반란을 소개한 바 있다. 여기에서 베트남 군대가 짜빈 사람들과의 싸움에 애를 먹었다고 했는데 “[...] 강한 쇠뇌(勁弩)를 장기로 삼아 관군이 이겨낼 수 없었”다는 내용이 주목된다. 비록 두척인 군이 승리했어도 어려운 싸움이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짜빈 크메르인의 동원은 이미 떠이썬 군에 참여하고 있던 크메르인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고도 볼 수 있다. 떠이썬 군대와 연대한 크메르인도 많았다. 응우옌 왕실이 캄보디아 경략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이에 반감을 가진 캄보디아인이 많았으며 그들은 응우옌 왕실 박멸을 주장하는 떠이썬에 동조했다. 섬병둔 조직 지시가 있는 지 3개월만에 캄보디아의 한 옥야가 칸터(Cần Thơ)에서 아인에게 도전했다. 이 싸움에서 아인은 직접 군대를 지휘해 승리했다고 하는데(『寔錄』1, 3:9a) 이런 경우에는 아인도 자신의 크메르 병사를 내세우면 유리한 면이 많았을 것이다.

섬병둔의 조직 체계나 운용 방식을 짐작케 해주는 몇 가지 기사가 있다. 우선, 섬병둔은 짜빈과 번티엣 출신 일부 남성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완문존이 병사로 삼은 대상은 ‘불러 모은’ 사람들이었다. 거처가 일정치 않은 유산민이든가 적어도 자신의 촌락을 벗어난 사람들이었다. 둔이란 원래 군사 촌락을 의미하되, 이 시기 섬병둔이 둔전병 같은 성격의 병대였던 것 같지는 않다. 10여년 뒤의 일이지만 군대 단위로 좌둔이니 우둔이니 하는 것이 생긴 적이 있다. 아인은 1798년 음력 6월에 왕 직속군 역할을 하는 신책군(神策軍) 산하 전, 후, 좌, 우, 중 등 5개 둔(屯)을 두었다(『寔錄』1, 10:8a). 이때 한 개 둔은 4개의 위(衛)로 이루어졌고 한 개 위의 병사는 500명 정도였다. 즉 한 개 둔은 2,000명 규모였다. 이 숫자까지 섬병둔에 적용시키기는 곤란하지만,

둔이 군대 편제의 단위라는 것, 하부 단위로 위를 두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아인이 아직 짜빈과 번티엣 전체를 지배 하에 두지 못했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섬병둔이 구성된 이듬해인 1788년에 짜빈의 관할권이 ‘옥야 척(隻)’에게 위임되는데(“以屋牙隻爲茶榮府安府”) 그를 일러 『寔錄』은 ‘랍인(臘人)’이라 적고 있다(『寔錄』1, 4:13b). 이 옥야가 진랍인 즉 캄보디아인이라는 말이다. 적어도 이 인물은 짜빈의 크메르인이었다. 캄보디아인 또는 크메르인을 그것도 옥야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을 왜 짜빈 지배자로 아인이 임명하는가? 이는 캄보디아의 짜빈 지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짜빈의 옥야는 캄보디아 왕이 임명한 사람이었지만 아인도 이를 추인하는 형태로 임명 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옥야 척에게 주어진 직책 ‘안부(安府)’란 것이 ‘府’ 즉 스룩을 편히 안둔시킨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지 베트남의 관직명은 아니다.

섬병둔의 지휘자는 완문존이었지만 그를 포함한 섬병둔 병사는 궁극적으로 베트남인 사령관의 지휘 하에 놓였다. 예를 들어 1793년에는 당시 아인이 가장 신임하던 장군 완황덕(阮黃德 Nguyễn Huỳnh Đức, 1748-1819)이 이들의 사령관이었다(『寔錄』1, 6:36b). 완황덕은 메콩 델타 딘뜨엉(Định Tường) 성 출신으로서 아인과 생사를 함께 하며 방콕을 다녀왔던 인물이다. 그의 출생지인 현 롱안(Long An) 성 띠안(Tân An) 시 지역은 그가 태어난 즈음에 아직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Ⅲ. 자딘-띠이썬 전쟁 참여

섬병둔의 움직임과 관련해 1793년 자딘 군의 북진 상황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해 아인은 계절풍을 이용한 수륙 병진 작전을 본격적으로 구사하기 시작했다. 많은 준비와 면밀한 검토 끝에 이루어진 이 기동은 아인 측으로서는 건곤일척의 승부수였다. 아인이 직접 출정을 해야 했던 까닭에 만일의 흉사에 대비해 후사 문제까지 결정해 놓고 떠났다.²⁶⁾ 음력 4월에 북진이 개시되었다. 아인이 직접 지휘하고 무성(武性 Võ Tánh) 등이 참여한 수군은 연경(延慶 Diên Khánh, 카인호아 성 나짱), 평강(平康 Bình Khang, 카인호아 성 년호아), 부안(富安 Phú Yên, 푸옌 성 푸이호아)을 차례로 점령하였고, 존실회(尊室會 Tôn Thất Hội)를 비롯해 완황덕, 완문성(阮文誠 Nguyễn Văn Thành)이 함께 한 보병은 판리(潘里 Phan Lý, 현 판티엣) 공격을 시작으로 평순(平順 Bình Thuận, 현 닌투언 성에 해당하며 판랑을 포함)을 점령한 이후 꾸년(Quý Nhân, 歸仁)까지 올라가 수군과 합류했다. 아인의 군대는 완문악(阮文岳 Nguyễn Văn Nhạc)의 거소였던 꾸년 성을 포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기지는 못했다. 아인은 사이공으로 돌아왔으며 완문성이 지휘하는 주력군은 새로 건설한 연경성(延慶城)에 머물렀다. 완황덕이 평강성을 지켰으며 다시 그 북쪽의 부안은 존실회가 담당했다.

이때 짜빈의 크메르 병사들은 원정대에 참가하고 있었을까? 그렇다. 바다에 익숙하지 못한 크메르인은 수군 보다는 보병으로 활동했다. 1793년 음력 4월 출동 때 전군영(前軍營)은 존실회, 후군영(後軍營)은 무성, 우군영(右軍營)은 완황덕, 선봉영(先鋒營)은 완문성이 지휘하고 있었다. 각 영은 3,000명으로 구성되었고 1개 영은 5개의 지(支), 1개 지(600명)는 5개의 교(校), 1개 교(120명)는 3개의 대(隊)이며 각 대는 40명으로 이루어진 편제였다(『寔錄』1, 4:36b). 그런데 이 4개 군영의 지휘관 임명 현황이 언급되기 바로 전에 “짜빈의 변병

26) 이해 음력 3월 장자 까인(Cánh 景, 1779-1801)을 동궁으로 임명했다. 『寔錄』1, 6:14a-15b.

(番兵) 600명이 부름에 응해 원정군을 따랐다”라는 기사가 나온다(『寔錄』1, 6:16b-17a). 앞서 말했듯이 존실회, 완황덕, 완문성이 육로로 부상했으니 짜빈 크메르 병사들은 이 세 지휘관 중 한 명의 군영에 속하거나 세 개 군영에 분산 배치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숫자가 600명이라면 독립된 한 개의 支로 편성되어 특정 영에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존실회는 중부 출신이고, 완문성은 사이공 지역, 그리고 완황덕이 룡안 출신인 점을 고려한다면 당시로서는 크메르인 지휘자로서 이 3인 중 완황덕이 가장 적격이었던 것 같다. 다음과 같은 기록은 그 증거가 될 만하다. 이 해 말 왕세자가 연경성으로 가서 주둔하기로 했을 때에 평강에 있던 완황덕을 사이공으로 소환하고 그가 관할하고 있던 “진랍, 말레이 군”을 연경에 주둔하게 했다고 한다(『寔錄』1, 6:35a-36a). 여기서 ‘진랍군’이란 말 그대로 캄보디아 군이다. 그런데 완황덕이 캄보디아, 말레이²⁷⁾ 군을 지휘하고 있었다면 짜빈 크메르 병사들도 이들과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짜빈 크메르 병사들이 ‘섬병’이란 확실한 명칭을 갖고 등장한 공간은 연경이었다. 1794년에 떠이썬 군이 연경을 공격하자 아인은 다시 수륙 합동 작전으로 연경을 구원한 후 연경에 있던 군대와 합세하여 티나이(Thị Nai 施耐)까지 북진했다. 이해 음력 6월에 아인은 왕세자로 하여금 육로로 티나이 근처의 떠이썬 군을 공격할 것을 명하면서 위위(衛尉) 반문조(潘文趙 Phan Văn Triệu), 오리위(烏離爲 Ô Ly Vi), 진문신(陳文信 Trần Văn Tín), 여문열(黎文悅), 고문리(高文理 Cao Văn Lý), 관섬병 해대(管暹兵 該隊²⁸⁾) 완문존(阮文存), 해기

27) 말레이인은 18-19세기 메콩 델타로부터 하띠엔, 까마우 지역까지 곳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812년 하띠엔 도시 계획을 할 때는 베트남인, 중국인, 크메르인, 말레이인을 각각 따로 모여 살게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寔錄』1, 43:5b. 종종 말레이 해적이 투항해 베트남 군대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시기 말레이 해적들은 캄보디아에도 출몰했다. 태국에 있던 캄보디아 왕 낙인(匿印)이 1794년 캄보디아로 귀국했는데 그가 태국으로 간 이유는 말레이 해적의 공격 때문이었다. 『寔錄』1, 7:12a. 16세기부터 캄보디아 정치에는 자주 말레이인이 등장했다.

(該奇) 장문봉(張文鳳 Trương Văn Phụng)으로 하여금 휘하 병사를 이끌고 왕세자를 따르게 했다(『寔錄』1, 7:9b). 이 중 오리위는 프랑스인 올리비에 드 뵈마넬(Olivier de Puymamanel, 1768-1799)로서 사이공의 팔괘성을 건축한 사람이다. 그의 휘하에는 일부 유럽인 용병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다.²⁹⁾ 환관 출신의 여문열은 당시 연이어 무공을 세우며 승승장구 중이었고 8년 뒤 그의 군대가 하노이에 가장 먼저 입성하게 된다. 반문조와 진문신, 여문열은 1798년 신책군 산하 다섯 개 둔이 설치될 때 각각 병력 2,000명을 지휘하는 전둔, 우둔, 좌둔의 사령관인 정통(正統)으로 승진하게 될 자던 군대의 엘리트들이었다(『寔錄』1, 10:8b). 이들과 더불어 완문존의 섬병둔 병사들이 왕세자 지휘 하에 최일선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이들이 참여한 1794년 공세의 최종 작전이 끝난 후 섬병둔병은 연경으로 귀환했다가 사이공으로 돌아갔다. 아인은 이들을 보내면서 상급으로 1,000緡을 지급했다고 하니(『寔錄』1, 7:9b) 완문존 휘하 병력의 활동이 아인으로서는 대단히 흡족했던 것 같다. 이후 아인은 부안과 평강에 다시 수비대를 정비하고 연경 수비장으로 무성을 남겨놓고 사이공으로 돌아왔다. 무성이 지휘하는 후군영 병사들은 1794년 가을부터 1795년 여름까지 9개월 간 연경성에 고립된 상태에서 떠이썬의 포위 공격을 견뎌내며 1795년 아인의 계절풍 공격 작전을 성공시켰다. 이 공로로 후군영 병사들에게 지급된 상금이 일만 민(緡)이었다(『寔錄』1, 8:1b). 이즈음 왕이 상금을 내린 사례는 무

28) 대(隊)는 통상 40명으로 이루어졌고, 이의 장을 해대라고 한다(대장은 10인의 우두머리이다). 완문존이 거느리는 섬병둔의 수는 훨씬 많았겠으나 관직은 아직 해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역할의 중요성은 그의 이름이 위위(衛尉)와 해기(該奇)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29) 포르투갈 용병에 더해 1780년대 말과 1790년대 초 369명의 프랑스인이 아인군에 있었으며, 여기에 네 명의 영국인도 더 있었다. Alexis Faure, *Les Français en Cochinchine au XVIII^e siècle: Mgr. Pigneau de Béhaine, évêque d'Adran* (Paris: A. Challamel, 1891), p. 248, Wilcox(2011), p. 53에서 재인용.

성과 완문존의 군대에 대한 것 두 개뿐이다.

이듬해 크메르 병사들은 베트남 동남부 해안 지대인 바리아(Baria)에 나타났다. 이는 섬병들의 능력을 다시 한 번 과시하는 사건이었다. 떠이썬의 역공이 1795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부안과 평강의 수비군이 일시에 무너지고 무성이 지키는 연경에 떠이썬의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다. 자딘으로부터의 지원군을 차단하기 위해서 떠이썬 군대가 연경을 우회하여 평순까지 밀고 들어왔다. 완황덕과 완문성이 이끄는 지원군이 사이공으로부터 파견되었지만 떠이썬 방어선을 뚫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밀려서 바리아까지 퇴각했다. 이 책임을 물어 아인은 두 사람을 직위 해제했다. 아인은 그들의 군대를 당시 바리아를 수비하고 있던 존실회에게 넘겨 평순의 산간지대인 마리(麻離)로 진격해 떠이썬을 압박하게 했다. 바리아 방어는 크게 약화된 상태였다. 무성이 지키는 연경은 고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원군은 고전하고 있었다. 곧 있을 아인의 생일에는 백관의 하례도 생략할 판이었다(『寔錄』1, 7:11b-24b). 긴장된 상황이 지배하는 이즈음 다음과 같은 기록이 눈길을 끈다:

섬병을 관할하는 해대 완문존이 청하여 차영부(茶榮府) 번병(番兵)으로 1지 5교를 만들고 빈절처(斌切處) 번병으로 전유도(前遊道)를 삼아 정·부 장지(長支)와 정·부 장교(長校) 및 해대, 대장을 두어 관리하고 통솔하게 해달라고 해 이를 허락하고 옥야 엽(葉), 옥야 과(鍋)를 정·부 장지로 삼아 번병을 관할하게 했다. 모든 교와 대를 합쳐 1,500인이었으니 완문존을 따라 바리아(婆地 Ba Dia)로 가게 해서 변방을 지키는 일에 종사하게 했다.(『寔錄』1, 7:24)

앞에서 말했듯이 한 개 지(支)는 병력 수가 600명이다. 그리고 다섯 개의 지는 3,000명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영(營)을 구성한다. 1,500명의 병력은 규모로 볼 때 한 개 영의 반에 해당하며 1798년에 만들

어질 신책군 산하 ‘둔’의 병력 2,000명에 가깝다. 그즈음 무성, 완황 덕 등이 각각 후군영과 우군영의 지휘관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일개 ‘해대’ 완문준은 지휘하는 병력 수만 놓고 볼 때 그 위상이 통상의 ‘해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이 조치가 있던 때가 정월이었는데 다음 달인 2월에 아인은 역풍을 무릅쓰고 직접 수군을 지휘하여 출병했고 존실회가 지휘하는 병사는 육로로 북진해서 7월에는 다시 자던군이 연경을 구원했다.

이듬해인 1796년 음력 11월 짜빈의 크메르 병사들이 산악 지대에서 발견된다. 이들은 평순에 속한 산지민의 소요를 진압하는 데 동원되었다. 짜빈 병사들이 주둔했던 곳은 평순부에 속해 있던 마리로서 띠이썬과의 전투에서 양측 보병의 이동로였다. 섬병둔 병사 일부는 1797년 음력 12월까지도 파무만(巴撫蠻)의 소요를 진압하는 데 투입되었다는 기사가 보인다(『寔錄』1, 9:6a; 11a; 37a). 1797년 4월 아인은 왕세자까지 동반하고 꺾년 정벌에 나섰다. 다낭을 공격하고 돌아왔지만 이 해의 작전에 완문준이 참가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 이들은 줄곧 평순 근방에 머물면서 보병 대열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

다음에 있었던 1799년의 대공세에서는 크메르 병사들의 활동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 해 4월 연경에 도착한 아인은 선봉을 맡은 완문성으로 하여금 부안을 공격하라는 명을 내리는데 이때 섬병을 함께 데리고 가게 했다(『寔錄』1, 10:30). 이때부터 완문성이 짜빈 병사를 관할하게 된 것 같다. 아인은 연경에서 수군을 이끌고 꺾년 입구인 티나이 진지를 공격할 것이니 부안 점령이 성공하면 완문성의 부대는 꺾년에서 아인의 부대와 합류할 참이었다. 기대대로 완문성의 부대는 부안을 쉽게 점령하고 꺾년 외곽까지 진입했다. 사언보(沙堰堡)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던 완문성의 군대가 띠이썬에 패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 섬병이 있었다가 세 불리로 일시 퇴각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하지만 완문성 군대는 다시 역공에 성공했고 얼마 되지 않아 무성의 군대(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 들어왔음)와 합류해서 쾨년 성 외곽에 진을 친 띠이썬의 주력군을 패주시키자 쾨년 안의 띠이썬군은 항복했다(『寔錄』1, 10:22b; 35b; 39b). 띠이썬 봉기의 시발점이자 띠이썬 삼 형제 중 맏형 완문악의 근거지로서 응우옌폭아인이 십여 년의 세월을 두고 공격했던 쾨년이 마침내 무너진 것이다. 이 국면 대전환의 시기에 짜빈 크메르 병사들이 육군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장차 이곳을 근거지로 하여 자딘군은 푸쑤언을 공격할 계획이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되자 아인은 사이공으로 철수하면서 빈딘이라 개명한 이곳의 수비 사령관으로 무성을 임명했다. 빈딘 성이 워낙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라 띠이썬의 필사적인 반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빈딘 성은 수비군에게 사지(死地)가 될 수도 있었다. 짜빈 병사들은 이곳에 투입되었다. 아인은 “후군영 지휘관 무성으로 하여금 분영 [후군영]의 병사에 더해 우군영 중지(中支) 소속 무량위(武良衛), 전군영 중지 소속 속원대(屬員隊), 선봉의 숙위좌지(肅威左支), 어림군(御林軍) 5둔, 천장위(天長衛), 신직위(信直衛) 병사들과 함께 ‘섬병’을 포함한 1만 명을 이끌고 예부상서 오종주(吳從周, Ngô Tông Châu)와 함께 빈딘 성을 지키게 했다.”(『寔錄』1, 11:13b)

고립된 빈딘 성은 곧 포위되었다. 이듬해 다시 북진한 아인의 군대가 좀처럼 띠이썬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는 가운데 1800년 한 해 내내 무성의 군대는 빈딘 성 안에서 견뎌냈다. 그러나 1801년 다시 출동한 아인의 군대가 공격의 방향을 푸쑤언으로 돌리자 빈딘은 마침내 함락되었다. 무성은 자결했고 성에 남아 있던 그의 부하들은 “한 사람도 적을 위해 일하려고 하지 않았다(無一人肯爲賊用)”고 ‘무성 열전’은 전하고 있다.³⁰⁾

30) 『大南正編列傳初集』(1889. 慶應義塾大學語學研究所, 1962)(이하 『初集』), 6:15a.

그러나 짜빈 병사들의 선택은 달랐다. 완문존의 열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담고 있다.

[완문존은] 기미년(己未年, 1799)에 무성을 따라 빈딘 성을 지켰고 신유년(辛酉年, 1801)에 성이 함락되자 적에게 붙잡혀서 다시 병사를 거느리게 부러졌다. 마침 아군이 적과 싸우는데 존은 거짓으로 적을 위해 힘을 내고 아군이 그를 오라 해도 돌아보지 않았다. 적이 그것을 믿으니 마침내 틈을 타서 우리에게 돌아왔다.(『初集』, 28:3)

아인이 크메르 병사들을 빈딘 성에 투입한 이유는 충성심 때문이었을까, 전투력 때문이었을까? 완문존이 아인을 수행해 방콕을 오간 30여 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전자일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그 충성심이란 완문존 개인의 것이다. 그가 동원한 크메르 병사들에게까지 이를 기대함은 무리였다. 더 중요한 고려 요소는 짜빈 크메르 병사들의 전투력이었을 것 같다. 이는 훗날 민망 황제가 완문존의 공적을 언급하는 데서도 읽을 수 있다. 그는 “옛적 빈딘의 전역에서 위원군(威遠軍, 섬병둔 군사를 이룸)이 떠이썬 적도의 손에 떨어졌을 때 적장이 [완문]존의 재능을 사랑했다. [완문]존 역시 그를 위해 병사를 운용하고(用卒) 군대를 온전히 하여 돌아왔다. 진실로 지혜롭고 용맹(智勇)했다”(『初集』, 28:4b)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적장이란 떠이썬의 명장 진광요(陳光耀 Trần Quang Diệu)를 가리키는데, 어느 전장에서고 양군 사이의 1년이 넘는 싸움에서 적의 장군을 사랑하게 할 요소는 싸움 실력밖에 없다. 의리나 충성심, 인간성 등도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부차적일 뿐이다. ‘사랑’에 응해 완문존은 떠이썬을 위해 ‘병사를 운용’했고 ‘군대를 온전히 하여 돌아온’ 능력이 ‘지용하다’ 상찬되었다. ‘돌아온’ 크메르 병사들은 다시 완문성 예하에서 떠이썬과 싸웠다(『初集』,

28:3b).

다음의 기사를 보면 섬병둔 군사는 아인의 군대어나 떠이썬 군대에 모두 충실한 전투 집단이었다:

[완문]존에게 사람들이 문기를 옛날 적중에 있을 때 적을 위해 열성적으로 싸웠던 것은 왜인가? 하자 [완문]존이 말하길 크게 아군을 상처주지 아니하면(不大創我軍) 적이 믿지 않을 것이요, 적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 능히 군사를 온전히 하여 돌아올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다.(『初集』, 28:3b)

이 말에 “사람들이 그 지혜에 감복했다”(ibid.)고 한다. 과연 이를 순수한 ‘지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떠이썬을 위해 ‘열성적으로 싸웠’고 ‘크게 아군을 상처주’었던 건 적어도 당시는 완문존의 군대가 떠이썬을 위해 최선을 다한 우수한 전투 집단이었다는 말이 된다. ‘열전’에서는 완문존이 떠이썬을 위해 싸우던 광경을 완문존이 적을 위해 “힘을 내니(出力)”라 기술하고 있고 ‘실록’에서는 심지어 그가 적을 위해 “죽을힘을 내었다(出死力)”(『寔錄』1, 14:18b-19a)고 까지 한다. 아인 측이 관찰한 내용이다. 두 기사 모두 “거짓으로 도적들을 위해(佯爲賊)”라는 단서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 말은 완문존의 진술에 의거한 것일 수밖에 없다. 바로 뒤에는 “아군이 그를 불렀으나 [완문]존은 그것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이 또한 아인 측의 관찰이다. ‘거짓으로’라는 말만 빼면 적어도 적진을 탈출하기 전 완문존의 군대는 적을 위해 사력을 다하여 싸우는 가운데 아인 군에게 타격을 입히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아인의 군대로서는 짜빈 병사들이 떠이썬과 생시를 함께 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 합류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선택이었다. 양군의 팽팽한 접전에서 수백 명의 정예부대가 이탈한 데 더해 창을 거꾸로 겨누었다면 이는 양군 전투력의 균형을 깨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명히 적에게 투항했고 아군에게 크게 손실을 입혔는데도 ‘지용’이니 ‘지혜’라는 단어를 써가며 섬병둔의 행동을 합리화 해 준 건 크메르 집단을 달래고 포섭하려는 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같은 크메르인임에도 불구하고 섬병둔 병사는 캄보디아 본국에서 온 병사들과 비교되곤 했다. 짜빈 크메르 병사가 빈딘 성에 들어가 있던 1800년 캄보디아의 관리 고라흠삼(高羅歆森)은 병사 5,000명과 코끼리 10여 필을 이끌고 사이공에 도착했고 이들은 빈딘 성 탈환의 전초 단계인 티나이 전투에 투입되었다(『寔錄』1, 12:13a; 13:19-20). 그러나 이들이 적과 내통하는 게 발견되자 아인 측은 이들을 전선에서 격리해 꾸몽 해구로 보냈다가(『寔錄』1, 12:23a) 완황덕의 관할 하에 두었다(『寔錄』1, 12:26a). 당시 완황덕은 산지 소수민족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고 섬병둔도 관할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캄보디아 병사의 노략질이 문제되면서 이들의 이용 가치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더군다나 이들은 현지 기후에 익숙하지 못해 병질자도 꽤 발생했다고 한다(『寔錄』1, 12:37b; 16:10b-11a). 이에 비해 섬병둔 병사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기사는 ‘실록’에서 전혀 찾을 수 없다.

떠이썬 군에서 이탈한 크메르 병사들은 자딘 군에게 긴요했다. 완문존 휘하 병사들은 빈딘 성 공격에 투입되었다(『寔錄』1, 14:18b-19a). 지휘관은 완문성이었다. 빈딘 성 안에는 무성 군을 이겨낸 바 있던 진광요의 떠이썬 군이 있었다. 푸쑤언을 근거지로 삼게 된 아인은 푸쑤언 이북으로 여문열을 보내 북진케 하면서 떠이썬의 근거지 탕롱으로부터 남진하는 적을 막아내게 했다. 그리고 남쪽에는 완문성을 남겨 빈딘을 탈환하게 했다. 북으로부터 내려온 떠이썬 원군이 여문열에 의해 진군이 좌절되고 여문열의 병력이 군대를 되돌려 빈딘 성 공격에 합류하자, 전의를 상실한 진광요가 1802년 음력 3월 빈딘 성을 탈출했다. 이로써 빈딘은 완전히 응우옌푹아인에게 넘어

갔다.

곧이어 음력 5월에 후에(Huế)에서 대규모의 포상과 승진 인사가 있었을 때 “섬병둔을 지휘하는 완문존을 해기(該奇)로 삼고 휘하 완문전(阮文佃 Nguyễn Văn Diên) 등 200여인에게 각각 해대, 부대(副隊), 대장 직을 주었다.”(『寔錄』1, 17:5) 크메르 병사 200명이 대장 이상의 직을 받았으니 포상은 충분히 두둑했다.

이 달에 응우옌푹아인은 탕롱을 향했는데, 여기서 섬병둔은 어떤 활약을 하였을까? 북진의 군대를 재편하면서 응우옌푹아인은 중군을 맡게 한 완문장(阮文張 Nguyễn Văn Trương)으로 하여금 수군을 지휘해 나가게 하고 좌군 사령관 여문열, 후군 사령관 여질(黎質, Lê Chát) 두 장수로 하여금 육로로 진격하게 했다. 그런데 빈딘에서 크메르 병사를 관찰했던 완문성이 북진 도중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혀 ‘실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이 해 9월에 완문성이 탕롱에서 『정관정요(貞觀政要)』 10권을 바쳤다고 하는 기사에서(『寔錄』1, 18:18b) 완문성 역시 탕롱까지 올라간 사실은 확인된다. 아인(이후 자롱 황제로 칭함)은 완문성을 북성총진관(北城總鎮官)에 임명하고 후어로 돌아왔다(10월). 그리고는 11월에 “완문존 휘하 섬병을 고향에 돌아가 휴식하게 했다”(『寔錄』1, 19:10b)고 한다. 이 경과를 보면 짜빈의 크메르 병사들이 탕롱까지 다녀왔을 가능성이 높긴 하다. 북진 과정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예상되었던 데다가 완문성이 탕롱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자롱 황제가 탕롱으로부터 다시 후어로 내려온 이후에 곧 섬병둔 귀향 조치가 내려지는 것을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자롱이 탕롱에 머물렀던 시기의 절기(음력 10월까지)로 보아서도 크메르 병사가 북부의 추위를 걱정할 염려는 없었다.

IV. 캄보디아에서의 활동과 변경 방어

완문존의 섬병둔 병사들은 1787년부터 15년에 이르는 전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이들의 군사적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섬병둔병은 이제부터 베트남 제국 내로 편입된 크메르인을 지배하는 집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섬병대의 관리 대상은 베트남 내 크메르인, 캄보디아와 베트남 사이의 경계인, 그리고 심지어 캄보디아 본토인까지도 포함될 예정이었다.

앞에서 필자는 짜빈, 번티엣에서 징발한 인력으로 섬병둔이라는 부대가 만들어지고 이들 지역 지배권은 여전히 캄보디아 관리인 옥야가 행사하고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섬병둔이 귀향하면서 그들의 고향에 대한 자롱의 지배 체제가 재편되었다. 이 두 지역에의 지배권을 섬병둔병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 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강(鎭江) 사온보(斜溫堡)에 수비대를 세워 차영(茶榮), 빈절(斌切) 2 부(府)를 겸하여 관할하고 영진영(永鎭營)에 예속시켰다.”(『寔錄』1, 19:10) 여기서 진강은 꺄티, 사온은 현 짜온(Trà Ôn)을 가리킨다.³¹⁾ 그리고 영진영은 훗날 빈롱 성이 되는 곳으로서 당시 치소는 룡호(Long Hồ 龍湖)에 있었다. 짜온 수비대 병력은 영진영에 소속됨으로써 짜빈 지역이 베트남의 공식적 행정 지배 체제 하에 놓이게 되는 준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짜빈에는 전쟁 기간 베트남인의 이주, 떠이썬 패잔병의 잔류, 응우옌푹아인 군대에서의 이탈 등으로 베트남인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미 1802년에 짜빈, 번티엣 2부의 옥야는 베트남인들이 크메르인의 토지를 멋대로 차지하고 있음을 불평하고 있다(『寔

31) 『가정성통지』는 이곳을 ‘茶溫’이라 하고 “위원둔 고면병(高綿兵)이 둔전을 치고 지키는 곳”이라 적고 있다. Trinh Hoài Đức(1998), p. 151.

錄』1, 21:8b).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크메르인 지역으로 베트남인의 이주가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들 베트남인을 지배하기 위해서(또는 그 명목으로) 베트남 정권의 행정력, 군사력 역시 크메르인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중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말하자면, 사쿠라이가 하띠엔의 형편을 묘사한 ‘이중적 정치 구조(dual political structure)’(Sakurai 2004: 45)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형편에서 섬병둔 병사가 짜온에 주둔하면서 짜빈과 번티엣을 관할하게 한 것은 귀향이라기보다는 베트남 지배권 확대의 전위대로의 전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다. 1804년 정월 자롱 황제는 “장지(長支) 엽무(葉茂 Diệp Mậu)를 흠차해기(欽差該奇)로 삼아 차영부(茶榮府)를 관할하게 했다”(『寔錄』1, 23:20a)고 한다. “[엽]무는 진랍인으로서 오랫동안 정벌군을 좇았고 집안 재산을 많이 내어 군대를 도왔다”(『寔錄』1, 23:20a). 그의 ‘열전’은 ‘완문존’ 조에 짧게 부기되어 있는데 내용은 위의 것이 전부이다. 단지 그 시작 부분에서 ‘엽무 역시 진랍인’이라는 표현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이 기사가 ‘완문존은 진랍 차영인으로서 [...]’에 호응된다고 볼 때 비록 엽무가 짜빈 사람이라는 근거는 없지만 ‘진랍인’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가재를 내어 봉사했다는 사실을 보면 그가 완문존과는 달리 경제적 기반이 있는 인물이었으며, 그런 사람에게 짜빈 관할을 맡겼다면 그 역시 짜빈 출신 크메르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오랜 세월 자롱의 군대를 좇고 이미 장지의 직함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황제는 다시 자신의 명을 직접 받아 수행한다는 의미의 ‘흠차’를 붙인 ‘해기’로 승진시켜 짜빈 부를 관할하게 했다. 엽무를 통해 후세의 황권이 짜빈으로 깊숙이 침투하는 과정인 것이다.

경계인 통제 역할은 섬병둔의 귀향이 결정된 후 즉시 주어졌다. “섬병둔 해기 호문실(胡文室 Hồ Văn Thát)에게 명하여 사이공 서북

방향에 위치한 광화(光化), 치계(齒溪), 교역(交易) 3도(道)를 관할하게 했다. 문실은 평소에 3도 만병(蠻兵)에게 신뢰가 있어 완문존이 이로써 상주하니 명을 내렸다”(『寔錄』 1, 19:11b). 광화 등의 지역은 사이공 북서부 현재의 띠이닌과 그 주변에 해당하는데, 캄보디아 및 중부 고원 지대로 이어지는 곳이다. 섬병둔 해기라는 호문실의 혈연적 배경은 오리무중이다. 이 인물이 ‘실록’에 나오는 것도 이 기사가 처음이다. 해대였던 완문존을 해기로 승진시킨 게 몇 달 전이었고 휘하 200여인의 간부도 최상급이 해대였는데 갑자기 베트남 이름을 가진 인물이 섬병둔 해기로 등장한 것이다. 호문실은 1820년 완문존을 이어 위원둔병 지휘관이 된 뒤³²⁾ 1828년 ‘늡고 병들어 퇴직할 때까지’(『寔錄』2, 53:9) 위원둔병을 지휘하게 된다.

후에 왕조는 베트남 제국 질서 권역 내로 편입된 캄보디아에 베트남의 지배권을 확대하는 데도 섬병둔을 적절히 이용하였다. 1802년부터 1810년까지 섬병둔의 군사 활동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1808년 완문존과 그의 휘하 지휘관인 장지(長支)와 장교(長校)들이 후어로 불려가 1년 간 체류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자롱 황제가 왜 그들을 수도로 불렀는지 얘기되지 않고 단지 그들에게 상금을 주어 돌려보냈다는 내용뿐이다(『寔錄』1, 36:8a). 그런데 필자가 보기엔 이 지휘관 소환이 1810년의 군사 작전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 1808년에 불려가 1년을 머물렀다가 돌아갔다면 이들이 후어를 떠나 짜빈으로 귀향한 해가 1809년이 된다. 그리고 이 해 음력 11월에는 짜빈을 관할하고 있던 섬병둔 장지 업무를 후어로 부르고 있는 걸 보면³³⁾ 짜빈 및 섬병둔병과 관련된 모종의 움직임이 준비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부터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1810년 9월에 완문존

32) 『大南寔錄正編第二紀』(1861.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1963)(이하 『寔錄』2), 1:22b.

33)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섬병둔 장지 업무를 불려 수도에 오게 했다. 부장지(副長支) 익(益)으로 하여금 차영부(茶榮府)의 안무(安撫)를 맡게 하고 빈절부(斌沔府) 업무를 겸하여 처리하게 했다.”(『寔錄』1, 39:14b)

지휘 하 짜빈, 번티엣 크메르 병사들이 캄보디아로 들어갔다.

이 무렵 태국-캄보디아-베트남 3국 사이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1809년 태국의 라마 1세가 사망했다. 친베트남적 성향을 보이던 캄보디아 왕 양짚(Ang Chan, 1806-1835)은 방콕으로의 조문, 새 왕 즉위식 참여 등을 거부했다. 양짚을 향한 태국의 압력이 거세어졌음은 물론이다. 불안을 느낀 양짚은 베트남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응하여 황제는 가정성총진관(嘉定城總鎮官) 완문인(阮文仁)으로 하여금 2,000명의 병사와 군선을 국경 지대에 출동시키게 했다.

이때 황제는 딘뜨엣 진(鎭) 기록(記錄) 배덕민(裴德緝 Bui Đức Mân)과 완문존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 이들은 각각 딘뜨엣 진의 병력과 짜빈·번티엣 2부의 병사를 이끌고 “진랍을 배회하다가(從徇眞臘) 유사시에는 곧장 라벽(羅壁, 로백을 이룸)으로 진격”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섬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먼저 움직였음을 보이면 [적이]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진랍은 무사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황제의 판단이었다(『寔錄』1, 41:16b).

이 별동대의 주력군은 섬병둔 병사들이었다. 딘뜨엣 진 군사를 이끌게 했다는 배덕민은 직책이 ‘기록’인 것으로 보아 문신이다. 그는 군 지휘관으로서보다는 행정이나 정치적 협상을 맡았던 것 같다. 짜빈의 병사들이 캄보디아의 요처를 돌아다니며 베트남 군대의 선봉대로서 군사적 위세를 과시하는 가운데 유사시에는 그들을 태국군과의 싸움에도 앞세우겠다는 것이 자롱의 복안이었다.

이런 기능을 강조함인지 두 달 뒤인 11월 ‘섬병둔’은 ‘위원둔’으로 개명되었다(『寔錄』1, 41:21b). 이때 캄보디아 내에서 다시 분쟁이 발생하고 태국군이 바탐방으로 들어와 진을 치고 있었다. 이 보고를 접한 황제는 국경 지대에 주둔하고 있던 완문인의 군대를 로백으로까지 진군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곧 섬병둔을 위원둔으로 개명한다는 지시가 나왔다. 12월에 완문인이 지휘하는 베트남군은

로백 성에 이르렀다. 이 군사 기동은 성공적이었다. 태국 군대는 철수했다.

정세는 안정되었으나 위협은 상존했다. 완문인은 주력군을 철수시켰지만 캄보디아 왕 양잔이 불안감을 호소한다는 구실로 일부 병사를 남겨 그를 지키게 했다. 이 역할이 완문존의 위원둔병 1,000명에게 맡겨졌다(『寔錄』1, 41:27a). 캄보디아 중심에서 보자면 남쪽의 끝짜빈의 병사들이 캄보디아 수도에서 왕을 호위하는 주력군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과도기적이었다. 대체 작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1811년 음력 3월의 기사에 따르면 위원둔 병사들의 임무를 베트남인들이 맡게 되었다. 일단은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 중에서 사람을 뽑아 병대를 조직해 양잔 왕 호위대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 이유가 “[위원둔] 병사가 다수 로병(潞病)이 들었기 때문”이었다(『寔錄』1, 42:12). 그런데 여기서 ‘로병’이라는 표현이 맹랑하다. ‘로병’이란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 ‘피로한 증상’을 이른다. ‘피로함’을 이유로 들어 크메르 병사들을 철수시키고 대신 베트남인들이 호위대로서 양잔을 둘러치게 되었다. 베트남으로 돌아온 위원둔병의 지도자 완문존은 곧 후어로 올라가 자롱 황제를 알현했고 자롱은 그에게 황금 10냥과 백금 30냥, 전 200緡, 옷 세 벌, 관복 한 벌을 상급으로 주었다고 한다(『寔錄』1, 42:13).

그렇다면 이제 위원둔병의 역할은 무엇이 남았는가? 1811년 음력 12월 캄보디아 왕실의 형제 간 싸움으로 양잔의 동생 원(原)이 방콕에 지원을 요청하자 다시 또 태국군이 출동하여 바탐방에 이르렀다. 양잔은 베트남을 끌어들이고자 했다. 베트남 조정은 흔쾌히 동의했다. 곧 황제는 위원둔병을 징발하여 발병을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가정성충진관 완문인에게 내렸다(『寔錄』1, 43:22a). 태국군의 위협이 증대하자 양잔은 1812년 음력 3월에 1,500명의 무리와 함께 사이공

으로 도망쳐 왔다. 베트남 측은 사이공 성 동쪽에 양잔의 거소를 마련하고 이들 망명자들을 구휼하고자 비용을 들여야 했으니(『寔錄』1, 44:9), 캄보디아 개입 명분은 충분했다. 음력 4월부터 남부의 모든 병력은 캄보디아 쪽으로 전진 배치되었다. 이때 위원둔병은 딘뜨엉성에 속하고 캄보디아에 인접한 통평(通平, *Thông Bình*)³⁴에 진주했다(『寔錄』1, 44:17a). 7월에 여문열이 새로이 가정성총진관으로 임명되었다(『寔錄』1, 45:3). 그리고 다음해 음력 4월, 1만 3천여명의 병력을 이끌고 여문열은 양잔을 응위해 국경을 넘었고, 북으로 진격해서 로벡으로 들어갔다(『寔錄』1, 46:11b). 이후 여문열의 건의로 캄보디아의 수도를 프놈펜으로 옮겨 왕의 거소로 남영성(南榮城)을, 베트남군 주둔지로 로엄성(盧淹城)을 쌓았다. 그리고는 17세기말부터 남부 캄보디아를 개척하기 시작한 완유경(阮有鏡, *Nguyễn Hữu Cảnh*)의 군대가 주둔했다는 귀당과(鬼撞鍋)라는 곳에³⁵ 안변대(安邊臺)를 만든 후 그 위에 지은 유원당(柔遠堂)을 캄보디아 왕의 망배소(望拜所)로 삼은 뒤 완유경의 사당까지 세웠다(『寔錄』1, 46:13b). 캄보디아 왕과 그의 신하들은 베트남 황제가 지급한 베트남 관복을 입고 두 달에 한번씩 프놈펜 근처의 베트남 사원에 가서 베트남 황제의 이름이 쓰인 제단에 절을 하는 의식을 치렀다고 하는데(Chandler 2008: 144). 여문열이 세웠다는 유원당이 바로 이 ‘베트남 사원’이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작전에서 위원둔병이 통평에 주둔했다는 사실 이외에 여타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왕을 ‘보호’하는 병사는 이전 베트남 정규군 1천명으로 정해졌으며 그 지휘는 내전 기간 중부 고원지대를 오가며 소수민족 병사들을 동원하는데 공헌하다가 딘뜨엉 진수(鎭守)를 맡은 뒤 캄보디아에 대한

34) 현재 동탑성에 속한다. 1819년 이곳에 通平堡가 건설되었다. *Đại Nam Nhất Thống Chi*, p. 118.

35) 이곳은 견터를 따라 프놈펜으로 가는 강물 줄기로부터 들어가는 운하 근방이었다. 이 지역은 바이옹쯔엥(*Bãi Ông Chưởng*)이라 불린다. Zottoli(2011), p. 319.

군사 작전을 지휘하기 시작한 완문서(阮文瑞, Nguyễn Văn Thoại)에게 맡겨졌다. 이후 캄보디아와 크메르인 관련 기사에서는 이 인물이 가장 비중이 큰 책임자로 등장하게 된다. 캄보디아 왕을 가까이서 ‘보호’하는 병대는 이렇듯 메콩 델타의 크메르 병사에서 캄보디아 내 거주하던 베트남인 병사들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베트남 정규군의 손으로 넘어갔다.

통평 주둔 기사 이후 위원둔병의 행적이 다시 나타나는 때는 1814년 음력 2월이다. 그러나 이들이 어디 있었는지는 사료에 보이지 않는다. 이해 조정은 가정성에 명하여 위원둔 소속병 각 대 270여인을 묶어 원차지(遠差支) 5개 隊로 만들었다(『寔錄』1, 48:9b). ‘원차’란 멀리 보낸다는 뜻이다. ‘멀리 위세를 보인다(위원)’는 데서 더 나아가 멀리 보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름이다. 이들을 어디로 보내려 했을까? 예정된 행선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후 캄보디아 정세는 안정되어 갔기 때문에 위원둔병이 ‘멀리 파견되는’ 일은 생기지 않았다. 두 달 뒤 황제는 해기 호문실(胡文室)을 위원둔 부지휘관으로 삼았다(『寔錄』1, 48:20a).

이 시점부터 위원둔병 지휘권은 호문실에게 넘어갔던 것 같다. 1816년 봄부터는 캄보디아를 통제하는 요새가 될 주독보(朱篤堡, Châu Đốc Báo)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이 공사를 위해서 남부의 병사 3천명이 동원되었고 캄보디아에서도 2천명이 징발되었다. 그 뒤 다시 4진의 백성과 위원둔병 각 1천 명씩 더 동원되었다. 캄보디아 백성을 동원하는 이유로는 장차 이 보루가 하띠엔을 보호하고 유사시 프놈펜의 요청에 응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작업에 위원둔병 천 명이 투입되었다(『寔錄』1, 52:5). 1년 뒤인 1817년 봄 주독보가 완공되자 4진³⁶⁾의 병사 100명, 위원둔병 200인으로 하여금 주독보를 지키게

36) 당시 하띠엔을 제외한 남부 베트남을 구성하는 진으로서, 비엔호아(邊和), 피엔안(藩安), 딘뜨영(定祥), 빈타인(永淸)이 있었다.

하였다(『寔錄』1, 55:11a). 이 때 병사들은 3개월 만에 한 번씩 교대하게 되어 있었으니 1,000-2,000명 정도의 위원둔병 중 200명을 3개월 단위로 교대시킨다면 위원둔병은 평균적으로 거의 1년에 한번씩 3개월 동안 주독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4개의 진에서 온 병사가 100명이지만, 위원둔 병사는 200명이니 숫자는 물론이고, 선발되는 지역 범위를 생각한다면 짜빈의 크메르 병사들이 주독보의 주력이 될 수밖에 없었다.³⁷⁾

호문실이 주독보 방어 사령관을 맡게 됨으로써(『寔錄』1, 55:19a) 앞으로 위원둔병은 베트남 땅에 남겨진 캄보디아인이 아니라 베트남 신민으로서의 크메르인이 되어갈 추세였다. 캄보디아인과 위원둔 크메르인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곧 시작된 또 하나의 대역사(大役事)에서 드러났다. 자롱 말기인 1819년부터 주독보와 하띠엔을 잇는 영제하(永濟河) 공사가 시작되었다. 위원둔병은 이 공사에도 투입되었다. 이해 음력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베트남인 5천명, 캄보디아인 5천명에 더해 위원둔병민 500명이 동원되었다(『寔錄』1, 60:7b-8a). 이 500명 통제권도 호문실이 맡았던 것 같다. 이 공사는 앞으로 수년간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면서도 인력 동원 규모가 확대될 것인데, 캄보디아 역사에서는 베트남인에 의한 가혹한 노동 징발, 착취로 기억된다. 영제하의 건설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이 마련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는 견해(Taylor 2014: 183)를 받아들인다면 이 긴장감 넘치는 양국민의 ‘협업’ 속에서 위원둔 병사들은 베트남 땅에 발을 딛고 서서 양국 간의 국경선을 긋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들은 베트남인으로 대접받고 있었다. 그 증거는 급료이다. 캄보디아인은 월 급여 지급액이 전 4민 5맥(陌)에 쌀 1방(方)인데 비해 베트남인과 위원둔병은 공히 전

37) 1818년 10월에는 4진의 병사와 위원둔 병사 수를 각각 100명씩 늘렸다. 『寔錄』1, 58:10a.

6민, 쌀 1방이었다(『寔錄』1, 60:8a). 1820년 민망 황제 즉위 얼마 후 얼마 되지 않아 완문존이 사망하자 위원둔 사령관직은 호문실에게 넘어갔다(『寔錄』2, 1:22b).

V.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짜빈과 번티엣의 크메르 병사들이 응우옌푹아인에 의해서 ‘태국 군대(섬병둔)’로 조직된 이래 37년 동안의 행적을 살펴보았다. 이 기간 동안 짜빈·번티엣의 크메르 병사들은 캄보디아가 잃어버린 땅의 백성에서 베트남 제국 건설의 긴요한 일꾼으로 바뀌어 갔다.

응우옌푹아인이 완문존으로 하여금 짜빈과 번티엣의 크메르인을 전투부대로 조직하게 한 1787년 당시 이 지역이 완전히 베트남 땅이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베트남 땅이라기보다는 캄보디아의 왕권과 베트남의 지배력이 중첩되는 지대였다고 하는 편이 더 사실에 가깝다. 이곳에서 응우옌푹아인은 병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이곳 크메르 병사의 전투력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완문존이 짜빈 출신이었다는 사실도 중요했다.

떠이썬과의 전투 중 무역품을 통한 수륙 병진 작전에서 섬병둔의 역할은 화려했다. 이들은 육전에서 완황덕, 완문성, 무성 등 아인 측의 맹장들 지휘 아래 전장을 누볐고 왕세자 까인이 연경성 수비를 책임지고 있을 때도 자딘의 정예 병사 및 서양인 용병들과 더불어 최일선을 지키기도 했다. 육로의 요충지에서 발생한 산지 소수민족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도 짜빈 병사가 투입되었다. 1799년 빈딘으로의 대진격 때 이들은 선봉에 섰다. 떠이썬과의 내전을 종결짓는 작전으로 평가되는 빈딘 성 싸움에서 고투하던 수비대 중에 짜빈·번티엣

의 크메르인 병사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다. 푸쑤언 수복 후 탕롱 성까지의 북진 대열에 크메르 병사들이 함께 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정황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짜빈의 병사들은 이후 제국의 확대 사업에 투입되었다. 아직 캄보디아 땅으로 여겨지던(적어도 캄보디아 왕에게는) 그들의 고향을 통제하는 역할이 부여되었다. 또 이들은 베트남군의 선봉대로 캄보디아 경영(또는 ‘보호’)에 헌신했으며 캄보디아에 개입하려는 태국군에 대항하는 제일선의 부대로 활동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원둔병 1천명은 캄보디아 수도에서 왕을 호위하는 역할까지도 떠맡았다. 1813년 이후 캄보디아가 안정을 되찾자 이들은 베트남의 캄보디아 경영 제일선인 주독보에 주력군으로 진주했으니 주독보의 기능이 자롱의 말대로 ‘하띠엔을 보호하고 유사시 프놈펜의 요구에 응하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곧 베트남의 번속국 캄보디아를 장악하는 작업인 바 위원둔병은 베트남 제국 질서 유지의 첨병이 되었던 셈이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흔히 건국의 주역들에게 그러하듯 두 가지 중 한 가지 운명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 하나는 공헌의 열매를 향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군주에 의해 제거되는 것이다. 무성과 완항덕은 전자의 경우였고 완문성과 여문열이 만난 건 두 번째 운명이었다. 짜빈 크메르 병사들이 생사를 함께 했던 베트남 지휘관이 양쪽에 걸쳐 다 있는 데서 암시되듯 그들의 운명도 이들 사이를 왕래할 것 같다. 크메르인을 이용하고자 한 데서 그들의 전투력이 가장 큰 고려 요소였음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전쟁이 있을 때는 영웅이로써 전쟁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크메르인을 ‘교화’하는 매개자로서 효용 가치가 있는 동안에 그들은 여전히 영웅이다. 그러나 베트남인으로 완전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크메르의 전통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베트남 조정의 눈에 잠재적 위협 요소로 간주된다.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민망 재위기인

1820년대와 1830년대 중앙 조정의 메콩델타 크메르인, 더 나아가 캄보디아 정책의 기초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大南寔錄正編第一紀』 1848,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1968.
『大南寔錄正編第二紀』 1861,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1963.
『大南寔錄前編』 1844, 慶應義塾大學語學研究所, 1961.
- 최병욱. 2014. “베트남의 ‘남부캄보디아’ 획득 과정에서 보이는 명
이주민의 역할.” 『동남아시아연구』 24(3): 45-84.
- _____. 2015. “인류학자의 역사 부수기.” 『동남아시아연구』 25(1):
273-282.
- Chandler, David. 2008. *A History of Cambodia*. Philadelphia:
Westview.
- Choi, Byung Wook. 2004. *Southern Vietnam under the Reign of Minh
Mang (1820-1841): Central Policies and Local Response*.
Southeast Asia Program Publications, Cornell University.
- Đại Nam Nhất Thống Chí, Lục Tỉnh Nam Việt* (大南一統志, 南越六
省) vol. 2, trans. by Nguyễn Tạo/Hán Học. 1959. Saigon: Nhà
Văn Hóa Bộ Quốc Gia Giáo Dục.
- Hall, D. G. E. 1958. *A History of South-East Asia*. London:
Macmillan.
- Huỳnh Minh. 1967. *Vĩnh Long Xưa và Nay* (빈롱, 어제와 오늘).
Saigon: Cánh Bằng.
- Lê Hương. 1970. “Địa Danh, Di Tích Lịch Sử, Thắng Cảnh trong
Vùng Người Việt gốc Miên (크메르인 지역의 지명, 역사 유

- 적, 勝景).” *Tập San Sử Địa* No. 14-15. Saigon.
- Li, Tana. 2006. “The Mekong Delta and Its World of Water Frontier.” Nhung Tuyet Tran & Anthony Reid (eds.), *Việt Nam, Borderless Histories*.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Monographie de la Province de Trà-Vinh*. 1903. Saigon: Imprimerie L. Ménard.
- Nguyễn Văn Hầu. 1970. “Sự thôn thuộc và khai thác đất Tầm Phong Long (띨땡땡땡 지역의 흡수와 개척).” Nguyễn Thế Anh et al., *Nam Tiến của Dân Tộc Việt Nam* (베트남 민족의 남진). Saigon: Khai Trí.
- Phạm Thị Thường Hạnh et al. 2012. *Văn Hoá Khmer Nam Bộ* (남부 베트남의 크메르 문화). Hanoi: Nxb. Chính Trị Quốc Gia.
- Phạm Văn Hương (ed.). 1995. *Lịch Sử Tỉnh Trà Vinh* (짜빈성의 역사). Trà Vinh: Tỉnh Ủy Trà Vinh.
- Sakurai, Yumio. 2004. “Eighteenth-Century Chinese Pioneers on the Water Frontier of Indochina.” Nola Cooke and Li Tana (ed.), *Water Frontier, Commerce and the Chinese in the Lower Mekong Region, 1750-1880*. Lanham: Rowman & Littlefield.
- Taylor, Philip. 2014. *The Khmer Lands of Vietnam, Environment, Cosmology and Sovereignty*. University of Hawaii Press.
- Thạch Phương-Đoàn Tứ (ed.). 1991. *Địa Chí Bến Tre* (벤째 地志). Hanoi: Nxb. Khoa Học Xã Hội.
- Trịnh Hoài Đức, trans. by Đỗ Mộng Khương, Nguyễn Ngọc Tỉnh. 1998. *Gia Định Thành Thông Chí* (嘉定城通志). Ho Chi Minh City: Nxb. Giáo Dục.
- Wheeler, Charles. 2006. “One Region, Two Histories: Cham Precedents in the History of the Hội An Region.” Nhung

- Tuyet Tran & Anthony Reid (eds.), *Việt Nam, Borderless Histories*.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Wilcox, Wynn. 2006. "Transnationalism and Multiethnicity in the Early Nguyễn Ánh Gia Long Period." Nhung Tuyet Tran & Anthony Reid (eds.), *Việt Nam, Borderless Histories*.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_____. 2011. *Allegories of the Vietnamese Past, Un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a Modern Historical Identity*. Yale Southeast Asian Studies.
- Woodside, Alexander Barton. 1971. *Vietnam and the Chinese Model*. Harvard University Press.
- Zottoli, Brian A. 2011. "Reconceptualizing Southern Vietnamese History from the 15th to 18th Centuries: Competition along the Coast from Guangdong to Cambodi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2015.10.28. 투고, 2015.11.10. 심사, 2015.11.16. 게재확정)

<국문초록>

응우옌 왕조(1802-1945) 건설 기 짜빈 크메르 병사들의 활용: 내전의 선봉, 외정의 전위

최 병 옥

이 연구는 메콩 델타의 크메르인들이 응우옌 왕조 건설에 어떤 공헌을 했는가를 검토한다. 델타에 있는 여러 크메르 공동체 중에 필자는 짜빈 성의 크메르인들을 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친 베트남 내전 기간, 그리고 통일 후 캄보디아에 대한 베트남의 영향력 확대 시기에 짜빈 출신 크메르 병사들은 응우옌푹아인 군대의 선봉을 담당했다.

필자는 짜빈의 명칭과 위치 비정 작업으로 본문 제1장을 시작한다. 스톡 뿌레아 뜨라빵(또는 뿌라스 뜨라빵)이란 이름으로 짜빈의 크메르인은 베트남 조정이 지배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18세기 말까지 캄보디아의 한 스톡으로 자율성을 유지했다. 뿌레아 뜨라빵은 ‘연못의 부처’ 또는 ‘신성한 연못’을 의미한다. 이 이름은 짜빈이 갖고 있던 불교 전통을 상징했다. 응우옌푹아인은 짜빈 크메르인을 떠이썬과의 싸움에 동원했다. 이들은 ‘태국 군대’라는 의미를 갖는 ‘섬병둔’으로 조직되었다. 이들의 지휘관 응우옌반똥은 짜빈 출신의 크메르인으로서 응우옌푹아인이 1784, 1785 두 차례에 걸쳐 방콕으로 망명했을 때 수행했던 인물이었다. 1787년 방콕을 떠나 메콩 델타로 돌아온 응우옌푹아인은 응우옌반똥에게 짜빈 크메르인을 섬병둔으

로 조직하게 했다.

제2장은 응우옌푹아인의 자딘군과 띠이썬 군대 사이에서 전개된 내전에서 크메르 병사들의 활동을 다룬다. 크메르 병사들의 활약은 눈부셨다. 그들은 자딘 군대 일원으로서 북쪽으로 진군했다. 그들은 전방에 배치되었고 그들의 활동은 응우옌푹아인을 항상 만족시켰다. 필자는 짜빈의 병사들이 내전 사상 가장 유명했던 빈딘성 전투의 한 가운데 있었음을 밝혀냈다. 띠이썬 군대가 2년 간 포위하고 있던 빈딘성 안에서 크메르 병사들은 보따인 장군의 지휘 하에 분투하고 있었다. 빈딘 전투 이후 크메르 병사들은 북으로 후에까지 이동했다. 비록 증거는 아직 찾아내지 못했지만 조심스럽게 필자는 이들이 응우옌푹아인의 군사들과 함께 탕롱까지 올라갔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캄보디아 통제와 관련된 짜빈 크메르 병사의 활동은 제3장에서 논의된다. 내전이 끝나자마자, 크메르 병사들은 그들의 출신지인 짜빈을 지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짜온에 주둔했다. 이에 더해 크메르 병사들은 응우옌 왕조의 군대가 캄보디아로 들어가기 위해 국경을 넘을 때마다 주력군으로 활용되었다. 이들의 작전 범위는 캄보디아의 수도였던 프놈펜뿐 아니라 그 북쪽으로 우동, 로벡까지를 포괄했다. 프놈펜의 왕궁에서 캄보디아 왕 앙잔을 호위하는 임무까지도 그들에게 맡겨졌다. 캄보디아를 통제하기 위해서 국경 지대인 썬우독에 군사기지가 만들어지자 크메르 병사들은 이곳의 주력군이 되었다.

주제어: 짜빈, 번티엣, 속짱, 응우옌푹아인, 완문존, 자딘, 메콩 델타, 자롱, 민망, 띠이썬, 크메르인, 섬병둔, 위원둔, 캄보디아

<Abstract>

Roles of the Trà Vinh Khmer Soldiers in the
Formation of the Nguyễn Dynasty: Spearheads
in the Civil War, Advance Guards in the
International Conflicts

CHOI Byung Wook
(Inha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tribution of the Mekong delta Khmer to the formation the Nguyễn dynasty. Among the Khmer communities around the delta, the Trà Vinh Khmer is the case for this study. In the time of the unification of Vietnam, and of the expansion of the Vietnamese influence on Cambodia, the Trà Vinh Khmer soldiers actively conducted the roles of the front forces.

Author starts his discussion with the work of clarifying the name of Trà Vinh and its location. With its own name of Srok Preah Trapheang (or Prac Trapang), Trà Vinh Khmer population had maintained its autonomy until the end of the 18th century when the Vietnamese court began to claim its sovereignty over this region. The original name 'Preah Trapheang' means 'Pond Buddha' or 'Holy Pond.' It represents Trà Vinh's strong heritage of the Khmer Buddhism.

Nguyễn Phúc Ánh succeeded in securing the support from the Trà Vinh Khmer to fight the Tây Sơn. Khmer soldiers were recruited into the military unit called Xiêm Binh Đồn or the military unit of the Siam soldiers. The leader of this military unit was Nguyễn Văn Tồn, a Khmer man who had accompanied Nguyễn Phúc Ánh to Bangkok in 1784, and 1785. In 1787 when Nguyễn Phúc Ánh came back from Bangkok to Mekong delta, he ordered Nguyễn Văn Tồn to organize the Trà Vinh Khmer into a military unit, the Xiêm Binh Đồn.

Second chapter deals with the activities of the Khmer soldiers during the time of the civil war between the Gia Định and the Tây Sơn. The role of the Khmer soldiers was splendid. They marched to the north as a member of the Gia Định army. They were posted to the front line and their military achievement was always satisfactory to Nguyễn Phúc Ánh. Author discovered the Trà Vinh soldiers were in the middle of the most famous and critical battlefield at Bình Định. They were fighting under the command of the general Võ Tánh in the Bình Định military post when it was sieged by the Tây Sơn army for two years. After the Bình Định battle, the Khmer soldiers marched to Huế. Author deliberately suggests a possibility that the Khmer soldiers should have stepped on the land of Thăng Long with Nguyễn army, though evidence has not been found.

The activities of the Trà Vinh soldiers in related to the controlling of Cambodian Trà Vinh and Cambodia proper are discussed in the third chapter. As soon as the civil war ended, the Xiêm Binh Đồn soldiers stationed in the Trà Ôn to rule the Trà Vinh area. In addition they were used as the main forces whenever the Nguyễn army crossed the border to enter to the territory of Cambodia. The realm of the

Trà Vinh soldiers' military operation covered Udong, Lovek, and Phnom Penh, the capitals of Cambodia. The mission to guard the Cambodian king, Ang Chan, was given to them for a while. When the Châu Đốc post in the border area was built in order to control Cambodia, these Khmer soldiers became the main body of this military base.

Key words: Trà Vinh, Xiêm Binh Đồn, Nguyễn Phúc Ánh, Nguyễn Văn Tồn, Gia Định, Cambodia, Khmer